부처님 당시 수천의 아라한은 다 어디로…



불 · 법 · 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 내) ☎ 055)633-6555

연등사에 인연이 되어 죽음의 길에서 새 생명을 얻었던 이들이 경험한 바 부처님의 바른 정법 수행만이 불보살의 가피(기적, 구원)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몇 해 전 연등사 법전에 멍석을 깔았었다.

네 분의 체험사례 발표를 각 15분씩하고 질의응답(즉문즉설)하였었다. 그날 참여한 이들은 타 종교인들이 많았고, 그중에서 조현병에 관심이 많았다. 불교인들 중에서는 선원, 명상 수련원, 센터를 운영하는 이들이 대다수였었다.

일반인들은 말기암, 전이된 암, 희귀병 등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종교인들은 조현병 환우와 가족에게 질문이 많았다.

그날 행사만으로는 부족해서 환우 가족들과 전번을 교환하며, 심지어 그 들 집에서 1박2일 기거하며 궁금한 내용들을 믿기 어려워 밤새도록 묻고 확인했다.

한 수련원 대표 일행은 홍보물을 내놓는데 보니 대학 강의는 물론 전국에 지원이 있고, 또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도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가기 직전 이 소납을 만나서 여기에 온 이유와 궁금한 것이 많았었는데 직접 환우와 그 가족들을 통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사찰, 방송 스타스님, 유튜브스님, 일인자라 자처하는 목사, 전도사, 퇴마사, 방송 출연 무당, 방송 최면술사, 대학병원 교수, 한의사, 등등 직접 겪었던 얘기를 구구절절 들으니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되는 잡귀행상(사주, 철학, 관상, 삼재풀이, 기도, 부적, 물고기 방생, 성지순례, 산신기도, 용왕, 운, 재수기도, 큰등, 작은등, 인등 등)을 하지 않고 오로지 바른 정법의 길을 가는 그 수행력(법력)만이 해결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수련원(센터)에 수련을 하고자 오는 이 외에 이미 정신을 잃은 이, 정신을 놓은 이, 전도된 이, 환시, 환청 등 소위 조현병 환우들이 전화 및 찾아와서 고통을 호소하며, 매달린다는 것이다. 그때마다 황당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능력 밖이라 외면하거나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저 그들이 하는 수련의 목적은 예방 차원에서 수련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의 한계를 느낀다고 했다. 그래서 소승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다. 뒷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서 여기까지 오면서 규모가 큰 절부터 큰 단체의 제의를 많이 받았지만 그때마다 출가자의 본분을 얘기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뇌경색

미리 예약된 환우기도 차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스님 일행(3명)이 교대로 운전하며 대전쯤 지나고 있을 때, 소승이 지금 태백산 ㅇㅇ절에 계시는 큰 스님을 뵈러 가자고 했다. 그때 스님들이 의아해하며 묻길래 가보면 안다 하며 태백산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해서 큰스님을 뵙는데 많이 편찮으신 모습이다. 어떻게 불편하시냐고 물으니 병원에서 퇴원한지 열흘 정도 되었는데 며칠 전 외출길에 길을 잃어 신도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아마..하고 말을 흐린다. 알고 보니 3달전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전국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3달간 입원치료하다 더 이상 차도가 없어 퇴원했는데 지금도 기억력이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시야가 반만 보여 차를 팔았다고 한다. 조급함에 "스님 기도 받으시겠습니까" 하니 "응"하는 것이다. 지금 서울에 급한 환우 때문에 갔다가 이틀 후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나왔다. 약속한 날 스님 일행과 신도 3명 등 5명이 다시 스님을 뵙고 저녁에 스님 처소로 가겠습니다 하고 공양 후 큰스님 처소에서 기도를 하고는 스님께 내일 아침 예불 후 다시 들러기로 하고는 다음날 새벽예불 후 처소에서 기도하고 공양은 뒤로한 채 바로 떠났었다. 그리고 보름 후 신도 일행과 같이 절에 가니 절마당 한켠에 새 차가 보였다. "스님 마당에 차는 뭡니까?" 하니 이제 그전처럼 다 보이고 기억력도 살아나서 다시 차를 샀다는 것이다. 그 큰스님과의 인연은 소승이 태백산에 들어갔을 때 인연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 서울로 공부 차 떠날 때 도움을 주셨던 분이다.

◉ 조현병, 설(혀)암

서울서부터 여기까지 20여 년 넘는 인연 보살이 전화가 왔다. 스님 죽은 줄 알았던 오빠(67세)가 인천 정신병원에 있다며 연락이 왔는데 가족관계를 묻자 맞다고 하니 지금 긴급한 일이 생겼으니 오빠를 데려가라는 것이다. 가서 보니 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조현병에다가 이미 혀가 녹아내리는 설(혀)암이 걸렸고, 주위에 전이가 되어 있다 하며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하고 조치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큰 ○○병원에 가서 병실(1인실)을 잡고 각종 검사를 예약했는데 문제는 조현병이 있어 어떻게 검사를 할 것인가 고민이다. 인천 정신병원장이 하는 말이 8년 병원에 있으면서 난리를 여러 번 쳤다는 것이다. 유명한 병원답게 예약자가 너무 많아 약 한 달 뒤 검사인데 조현병 때문에 어떡하면 되겠느냐고 한다. 우선 1인실에 넣고 여기 (연등사)와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폰으로 녹음을 떠서 환우 귀에 들려주라고 했다. 어쩔 수가 없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 중 1인만이 보호자로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내 손목에 있던 염주를 주며 환우 손목에 걸어주라고 했다. 혹 종교가 달라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 강요는 하지 말라고 했으나 사실 이 신도도 처음 올 때 기독교인이었고 몸이 너무 아파 소문 듣고 찾아왔었다. 알고 보니 가족 전체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병실에서 염주를 손에 끼려니 난리가 났다,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지르며 하느님이 벌줘 하며 거부하는 것이다. 그때 바로 귀에다 소승의 염불을 듣게 하니 갑자기 조용해졌다. 여기에 대한 일화는 많다. 그때 염주를 손목에 끼워주며 이제부터는 통증이 없을 테니 관세음보살을 하라고 하니 우둔한 소리로 관세음보살을 하더라는 것이다. 설(혀)암으로 인해 혀가 녹아내렸기 때문에 발음이 우둔할 수밖에..그래서 예정된 날짜에 검사를 할 수 있었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혀 복원수술도 무사히 할 수 있었고 혀 주위에 전이되었던 암들도 사라지고 없었다. 의사가 병실 올 때마다 이상하다는 것이다. 이때 보호자가 "예. 이상이 많이 있습니다" 하니 의사와 간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나갔다. 수술 후 암 환자들이 다 고통스러워하는 방사선, 항암제 등이 기다리고 있다. 이 환우 역시 수술 후 1차 33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금년 6월에 일어난 일이다. 그때 퇴원을 월요일에 했었고 그 주 목요일부터 1차 33번을 해야 한단다. 그래서 소납이 화요일 날 서울 환우 댁으로 가서 기도를 다시 해주고 여태껏 나의 기도를 받은 이들은 항암, 방사선을 받은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 강요는 안 한다. 선택은 가족들이 하라 하며 수요일에 내려왔다. 그런데 다음날(목요일) 환우하고 보살이 절에 왔다. 그 당시 걸음도 못 걷고 했기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해 주었다. 그렇게 절집에서 우선 생활하게 되자 하루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는 것이다. 절마당, 법당, 도량 청소를 하는 것을 신도들이 주일마다 그 장면을 보았다. 그렇게 지내는 와중에 보살 자신이 미안한 지 요양원을 알아보던 차 지인으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요양원을 소개받아 거처를 옮기게 되었고 거기서 약 한 달 지나갈 무렵에 급한 연락이 왔다. 그때 전화 온 시간이 07시경이었다. 환우가 새벽 4시경부터 발작을 하여 지금도 발작을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 보호자가 놀랄 수밖에. 그럼 인근 큰 병원으로 빨리 옮겨달라고 하고는 소납 한테 전화가 왔다. 그날 소납은 서울에 예약돼 있었던 환우 집에서 기도 중이었고, 마치는 대로 같이 가자고 했다. 병원에 도착하니 시간이 10시였다. 소납은 보호자가 아니라서 일반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보호자는 응급실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아직도 발작을 하고 있단다. 장장 6시간이나 발작을 멈추어야 검사를 할 텐데 걱정이다.

그때 소납이 대기실에서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가 끝나고 시간을 보니 10시 30분이다. 보호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발작이 멈추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자 응급실 간호사가 이제 막 멈추었다 하며 바로 검사실로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2~3일에 걸쳐 검사가 끝나자 소납이 바로 휠체어는 병원에 두고 절에 데리고 와서 기도 후 지금은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스스로 도량 청소도 더 열심히 하며, 절은 물론 매일 반야심경도 1편씩 사경하고 있다. 병원 암 수술 당시 170이 넘는 키에 45킬로였던 환우(67세)가 방사선 항암제 투여했으면 머리카락은 물론 지금쯤 고통으로 인해 먹지 못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못 믿겠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할 것이 아니라 와서 보고, 묻고, 또 묻고, 확인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종교, 종파를 떠나 누구나 참여하여 수행 결과(신통묘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을 열고 자 한다. 여기에 불상을 모시고, 불교를 빙자해 하는 행위가 잡상인에 불과한 술, 담배, 커피, 사주, 철학, 관상, 띠삼재기도 풀이, 부적, 운,재수기도, 금모자, 금장옷, 각종 돌, 산신, 용왕, 생일, 진산식, 원장, 관장, 이사장, 고급 가사, 장삼, 각종 합격, 승진기도, 큰등, 작은등, 인등, 등은 외도들이 하는 것이라 이들은 제한한다.

법화경 묘장엄 왕 본 사품에 외도에 빠져있는 국왕인 아버지를 제도키 위해 부처님의 제자인 아들 둘이 어머니의 명을 받아 신통을 보이는 장면이 있다. 국왕 앞에서 아들이 허공에서 수직으로 수평으로 순식간에 이동하며 멈추기도 하고, 최고 최상의 교설도 통하지 않고 외도에 빠져있는 이 장면을 본 왕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너의 스승이 누구냐며 바로 데려가 달라고 한다. 여기서 아들이 보인 신통 묘유는 육신통중 신족통에 해당한다. 신족통(神足通) :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하늘을 날 수 있고, 벽을 통과하며,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병 등을 낫게 해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지금 한국불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락에 떨어졌다. 법당엔 노보살님 몇 분이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법당은 물론 마당까지 불자들로 가득했다.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한참 늦었다.

이때야말로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 어떤 교설도 통하지 않던 국왕을 신통묘유로 제도하듯이 참수행자가 체득한 것을 보여주고 말은 뒤에 해야 할 것이다. 어느 큰스님처럼 득한 게 없으면 솔직해야 한다. 조현병이나 환우들이 수행력(법력)이 없어서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문 시 사부대중 앞에 고하며 평생 참회한다고 하셨다. 부처님 당시 수천에 달하던 아라한(신통묘유)는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절집엔 연일 말잘하는 앵무새들만 득실 거린다.

◈ 수행자 대회 시험내용은 말기암(전이된 암), 희귀병, 조현병을 기도로써 완쾌 시킬 수 있는 이
◈ 기도 시간은 하루 10분~30분해서 2일까지 가능
◈ 경, 진언, 다라니 등은 할 수 있으나 무속인이나 퇴마사들이 하듯이 신체를 압박하는 행위, 너 누구냐?, 너 나와라? 등등, ○○○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등등은 안됨.
◈ 방송스타 성직자, 유튜브 성직자, 말로 유명한 성직자, 신통방통하다는 성직자 등등은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행자대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불자 여러분들이 많은 성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 혹여 대도시 가까이 장소를 제공해 주실 분 있으면 연락 요망합니다.
※ **접수처 055-633-6555**
연등사(선재불교대학) | **도 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우:53211)

사례자 연락처

· 010-3466-9991 (김00)
· 010-4807-6932 (박00)
· 010-5699-3173 (박00)
· 010-9143-0098 (김00)
· 010-8291-9423 (변00)



❖ 본 내용은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